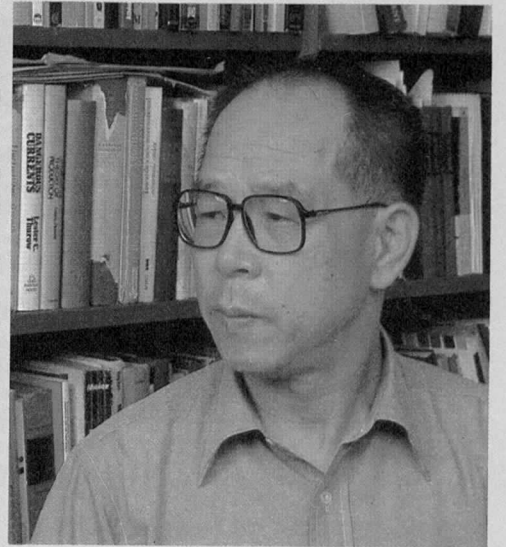




## 【경제학자의 책架】

# 邊衡尹 서울대교수



꼭꼭한 선비정신과 엄정한 '학문적 匠人'의 자세로 후학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경제학자 邊衡尹 교수(61). "저서는 무엇보다도 저자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요즘 「마살경제학연구」의 마무리작업에 한창이다. 특히, 마살의 이른바 '경제기사도'에 애착이 간다고 하는데, 그런 그에겐 해직기간에 마련했던 개인연구실까지 합쳐 서재라 할 만한 곳이 네 군데나 된다. 그래서인지 그의 책들은, 그가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분배의 정의만큼이나 골고루 잘 '분배'돼 있다.

사진 · 주명덕

